

제37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국 창업의 불편한 진실’

- 제37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2월 27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창업 컨설팅기업인 ‘쿠키스파트너’의 대표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국 창업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상백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외 포럼에는 충남도 지속가능정책팀, 중화권팀 및 시·군의 대외협력팀에서 참석하였다.



<그림1> 제37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박지민 대표는 중국 진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 창업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플랫폼을 소개하고 현지 창업의 접근방법을 소개하였다.
 -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문제점으로 사전교육과 준비 미비, 중국 비즈니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지역별 창업분석 부족, 중국어 구사능력 미흡, 아이템의 현지화수준 미흡, 중국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식 마케팅 경험 부족,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 중국 진출 준비 기업에게 현지 플랫폼인 치차차(企查查), 텐앤차(天眼查)를 활용해 현지기업을 조사·검증하고 치밍판(企名片)을 통해 아이템과 투자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진 위챗 공중계정도 언급하였다. 플랫폼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내 중국정보 플랫폼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 그리고 중국 벤처투자자나 재무고문회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중국 창업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사전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 강의를 끝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온 현상백 부연

구위원이 중국의 창업정책과 주요 지역별 창업실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우선,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중국과 미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부동의 1위이고, 베이징 중관춘도 순위(4위)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 중 창업협력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에는 대중국 교류가 제조중심, 무역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흥시장, 청년창업 등에 주목하고 중국의 청년창업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코트라,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종합토론 시 박지민 대표는 중국 지역별 창업환경에 차이가 많으며, 북경, 심천, 항주, 상해 등 지역을 추천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창업협력을 위해 지방소재 정부기관을 만나기보다는 텐센트 등 민간 창업인큐베이터를 만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지원기업 선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중국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설사 선발되었다고 해도 중국현지에 맞지 않는 아이템이나 마케팅으로 인해 성공률이 낮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보다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중화팀 남상길 팀장은 작년 랴오닝성 방문 시 랴오닝성에서는 아직도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더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이 이제는 중국보다는 베트남 등 동남아로 가는 추세라 실제교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현상백 박사는 동남아도 거의 화교가 장악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을 가는 것을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또 유럽시장으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